

YWCA (사) 한국YWCA연합회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1.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524.3511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

www.ywca.or.kr



2013 vol. 497 **1·2**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생명운동 '살림'의 사회

이달의 현장 1
2013 Y-틴 전국협의회

생명 씨앗
원자력 에너지에서 대체 에너지로 전환으로

YWCA와 에큐메니컬
고난의 땅 팔레스타인,
한국 그리스도인들 관심 가져야

한국YWCA 100년을 향한 청·춘·여·찬 비전 선언문

한국YWCA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선 젊은 기독교여성들의 시민공동체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서로 돌보는 정의 사회,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평화 사회,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공생하는 생명사회를 소망한다.

한국YWCA는 지난 9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성, 인종, 연령, 문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과 소외가 난무하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은 생태환경을 위협하여 심각한 생명 파괴의 현실을 낳았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철저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의, 평화, 생명의 새 세상을 이루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신(욥기 25:2, 디모데전서 6:15)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청·춘·여·찬”의 비전을 선포하고, 한국YWCA 100주년까지 10년 동안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청 (靑)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도전하고 변화하는(로마서 12:2) 젊은 YWCA와 사회가 되도록, 무한 경쟁의 교육 체제를 존중과 협력의 교육 체제로 바꾸고, 지역사회와 세계에서 봉사하는 청소년 리더십 개발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춘 (春) 우리는 핵 개발과 지구온난화를 막는 절제된 생활을 실천하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원순환적인 생태적 삶이 이루어지도록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 (女) 우리는 북한과 세계의 여성, 어린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며, 돌봄과 포용과 상생의 여성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찬 (讚)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사회적 갈등과 배제의 벽을 허물어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21세기 다문화사회를 선도할 것이다.

우리는 젊은 기독교 여성들의 시민공동체로서 선교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생명의 바람으로 “청·춘·여·찬”의 비전을 품고 한국YWCA 100년을 향한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이다.

2013 vol. 497 1·2 한국YWCA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



Cover Story

YWCA 키다리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자랐나?” 배우고 생각하고 놀면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제보다 오늘 키가 한 치나 더 자라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Contents

- 04 이 달의 생각 _ 생명 운동 - ‘살림’의 사회 | 차경애
- 05 이 달의 인물 _ 박에스터, 여성·빈민 두루 껴안은 ‘Y의 영원한 멘토’ | 이주영
- 06 이 달의 현장 ① _ 2013 Y-틴 전국협의회 | 고은희
- 08 생명 씨앗 _ 원자력 에너지에서 대체 에너지 전환으로 | 유미호
- 10 생명 이야기 _ 돌봄으로 지키는 생명 - ‘무연사회’를 살아가며 | 이윤숙
- 12 평화의 여정 _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 최수산나
- 14 돌봄협동조합 _ 그리스도 공동체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봐? | 배정미
- 16 오늘의 여성 _ 세계 YWCA, 여성폭력 추방 위해 일어선다 | 원영희
- 18 현장의 소리 _ 2013년도 신입사무총장 연수 | 편집실
- 20 이 달의 현장 ② _ 회원Y 정기총회 신입회장 선출 | 편집실
- 22 YWCA와 사회 _ 함께 하는 다문화 | 국민일보 기사 모음
- 24 키다리 _ 공감능력과 협동력 지닌 실천하는 리더가 Y다운 리더 | 편집실
- 26 YWCA와 에큐메니컬 _ 고난의 땅 팔레스타인, 한국 그리스도인들
관심 가져야 | 이윤희
- 28 문화가 산책 _ 시간소개 | 편집실
- 29 월례아침기도회 _ 생명을 회복할 시간, 아직 있습니다 | 최이우
- 30 연합회 소식
- 31 회원YWCA 소식
- 39 감동이 있는 나눔 _ 사랑에 빛진 마음 북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 송록희

제49권 제1호 통권 497호 2013년 2월 8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출판편집자문위원 김진영·백수경·신선·원영희·윤혜원·이경순·정선경·한영수 편집 박은실·이주영·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구독신청안내 구독신청료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맥으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운동 '살림'의 사회

글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13년 새해를 다시 맞는다. 지난 한해 창립 90주년을 맞아 많은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립 100주년을 향해 가는 순례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금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지난 해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91주년이 되기를 소원한다.


금년에 한국YWCA는 우리 삶의 근원인 생명운동을 펼쳐가기로 하였다. 지난 2년 동안 펼쳐온 정의, 평화운동에 이어 생명운동을 통해 YWCA 목적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긍지를 갖고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생명을 잃으면 그 생명은 다시 회복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생명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생명을 위한 투자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보다는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의한 죽음,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추구한 산업화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사고사, 돈을 더 벌려는 욕심 때문에 안전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불량식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금년에 한국YWCA에서는 생명포럼을 연다. 이 포럼을 통해 생명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반생명적 위기상황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면서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기 위해 탈핵을 위한 대안에너지 운동 또한 펼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YWCA가 70년대부터 시작해온 소비자운동도 생명운동과 연계해 생명소비자운동을 전개하며 바른 식문화 캠페인 활동도 펼칠 것이다.

금년에 한국YWCA가 펼치는 생명운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기대한다. 전국의 YWCA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우리 사회를 살려나가는 일에 한몫을 담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에스더, 여성·빈민 두루 겨안은 'Y의 영원한 멘토'

글 | 이주영 (연합회 홍보출판팀 부장)

YWCA 활동가에게 “당신을 보니 박에스더 선생이 생각난다”는 말만큼의 찬사는 없다. 박 선생은 YWCA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는 살아있는 모델이었다. 민주적 지도자란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잠재력을 살리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분이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행동하다

1904년 에스더는 하와이 파인애플농장 이민길에 오른 아버지의 품에 안겨 미국행 이민선에 올랐다. 호놀룰루 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하와이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에스더는 호놀룰루 Y 회장 앤드루 여사로부터 YWCA 간사가 될 것을 권유받았다. 그는 미국에서 유색인종으로는 처음으로 Y-틴 간사가 되어 12년간 활동했다. 박 선생이 파견 온 47년 즈음, 한국Y는 독립된 조직 YWCA로 재출발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연합회 임원진은 한국Y 재건을 위해서 박 선생을 한국에 빨리 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미국Y에 이를 정식으로 요청, 미국 국제부에서 이를 승인했다.

기초부터 든든히 세우다

박 선생은 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로부터 Y운동의 핵심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선생은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여성운동을 위한 근거지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명동 1가 1번지 1200평의 적산가옥 두 채를 연합회와 서울Y회관으로 받았다. 새로운 방법의 모금 활동을 펼친 선생은 미국 록펠러재단에서도 당시 5만 달러라는 막대한 지원을 약속받았고, 59년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전당인 서울Y 건물을 봉헌하게 됐다.


도움 필요한 곳에서 필요를 채우다

6·25 동안 중에도 대한YWCA이사회는 피난지 부산에서 Y회관을 짓고 전쟁으로 무너진 서울 연합회와 서울Y 건물을 수리했다. 또 동래의 농예원을 복구해 집을 잃고 방황하는 소녀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기술교육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급히 착수하기로 했다. 선생은 전쟁 중에 무의탁소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농예, 재봉, 편물 등 직업교육을 베풀어 직장으로 내보내는 일종의 직업훈련센터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가치와 사람을 이어주다

전후에 난민구호사업에 주력하던 성격의 Y프로그램도 Y-틴, 대학생, 청년, 주부들의 클럽을 통해서 지·덕·체를 두루 겸비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게 된다. 박 선생의 지도력은 Y가 근로여성과 농촌여성의 요구는 물론, 도시 저소득층, 중산층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뻗어나갔다. 70년대에는 가족법 개정운동과 타일 도배 페인트 훈련을 통한 새로운 여성 직종도 개발했다. 파출부 교육교재를 개발, 돌봄노동의 전문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YWCA는 건물이 아닙니다. YWCA는 사람입니다.
YWCA는 사업주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중요합니다.”

2013년 1월 30일은 향년 99세로 소천하신 고 박에스더 선생의 추모 12주기다. 한평생을 YWCA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분의 향기는 여러 한국의 여성지도자들과 선생이 머물렀던 명동의 YWCA 회관 내 박에스더기념관에 남아 있다. 

Y-틴, 키다리로 자라다

글 | 고은희 (연합회 청년리더십팀 간사)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Y-틴 전국협의회가 열렸다. 올해 전국협의회 주제는 'Y-틴, 키다리로 자라다' 라는 주제로, 한국의 모든 Y-틴 대표들이 키다리학교의 정신에 따라 성장하길 바라는 열원에서 지어진 것이다.

1월 15일 화요일 정오부터, 전국협의회가 열리는 버들캠 프장으로 한두 명씩 참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첫 시작은 중앙임원이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다. 이날은 연합회 유성희 총장님께서 직접 우리 Y-틴 들을 격려하시고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여는 예배시간에는 굶주리는 북한아동의 현실을 담은 영상 '감자굴 상하이' 를 시청하였다. 이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한국Y에서 진행되는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Y-틴 대표들에게 호소하였다. 사회 이슈에 반응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움직이는 것이 키다리학교 세 가지 청년상 중 '실천 리더십' 의 모습이 기 때문이다. 실제로 2박 3일 동안 중앙임원들이 Y-틴 카페를 직접 운영하며 모은 89,750원의 수익금을 북한 어린이돕기 분유 보내기 운동에 기부하였다. 모두가 자신의 먹을 것의 일부를 나눌 때에 더욱 풍성해지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이번 Y-틴 전국협의회 때 체험할 수 있던 것이다.

이번 Y-틴 전국협의회는 키다리학교의 청년상인 '팀리더십', '비전리더십', '실천리더십' 의 세 가지 리더십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첫째 날 첫 워크숍 '팀리더십' 은 전선영 팀장(고양Y, 키다리학교 TF팀 운영진)이 진행하였다. 팀리더십은 월드카페의 형식을 빌려 테이블마다 청소년 호스트 12명을

세우고, 그들의 삶의 문제와 사회문제를 연관시켜 고민을 나누되, 시간이 지날 때마다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월드카페는 소위 '집단지성' 의 힘을 구현하기에 가장 좋은 토론 방식이다. 개인의 사소한 문제를 여러 사람들과 나눌 때 가질 수 있는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Y-틴들은 자신의 문제를 타인과 나누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저녁식사 후, '응답하라 2012' 는 김은경 위원(연합회 실행위원, 키다리학교 TF팀 책임위원)의 진행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Y-틴 운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의 운동을 돌아보며 2013년의 Y-틴 운동은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듯했다.

둘째 날이 밝았고, '운동' 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우리 Y-틴들은 스스로 한국YWCA 운동의 역사를 조사하여 연도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와 밀접한 사회문제를 찾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모든 행위인 것이다. 지역별 역사 발표를 마친 뒤, 중앙임원들이 뽑은 한국 사회 세 가지 이슈-노인 빈곤, 여성폭력, 탈핵-를 소개하였다.

이 문제들은 과연 우리와 무관한 것일까? 우리 청소년들이 삶 속에서 겪는 불편함과 사회 문제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 것인가? 점심 식사 후, 팀별로 2013년 전국중점운동 과제와 운동 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정 진행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Y-틴들은 이 시대의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었고, 그들이 염원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제까지 선정하였다. 그날 Y-틴들이 선정한 주제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청소년 자살 예방, 청소년 정치무관심 해소, 청소년 범죄 예방,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 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의회에서는 전국중점운동을 정하고, 중앙임원후보 선출과 공약협약이 이루어졌다. 지역협의회에서 논의된 전국중점운동과 전국중점주제는 아래와 같다.

- 1 북부지역 : 독도 알리기
〈아름다운 땅 독도, 더 말이 필요한가요?〉
- 2 중부지역 : 청소년 자살예방
〈그 옥상 시멘트 사이 민들레처럼〉
- 3 동부지역 : 청소년 자살 예방
〈Y-틴과 함께 세상 살기, 참 좋은 날씨다〉
- 4 서부지역 : 스마트폰 중독 예방
〈지식은 LTE, 관계는 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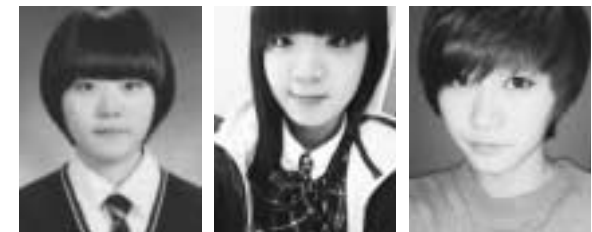
마지막 날, 전국협의회 때 최종 선정된 2013 Y-틴 전국중점운동은 독도 알리기 '아름다운 땅 독도, 더 말이 필요한가요?' 으로 채택되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Y-틴들은 지역별로 '역사바로알기교육', '독도알리기 UCC 제작 및 유튜브 배포', '길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2013년 YWCA 청소년 리더로서 비전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반응하여 함께 운동해가는 Y-틴을 기대한다. 한편 전국협의회장은 광주Y 이의선 양이 당선되었고, 총무로는 수원Y 박성현 양이 당선되었다.

전국협의회장이 되어

글 | 이의선 (Y-틴 전국협의회장)



광주에 있는 한 학교의 Y-틴 회원인 내가 이렇게 전국협의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나를 믿고 이 자리에 세워준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Y-틴 선배들이 이룬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하며 모든 회원이 단합되는 전국 Y-틴이 되도록 만들겠다. 더욱더 낮은 곳에서 회원들을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한다. 나는 Y-틴 전국협의회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YWCA를 청소년의 입장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Y-틴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국협의회총무 박성현 북부지역회장 김민지 북부지역총무 전유진



서부지역회장 박지현 서부지역총무 전혜빈



중부지역회장 양유정 중부지역총무 이규은 동부지역회장 류지현

원자력 에너지에서 대체 에너지 전환으로

글 | 유미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실장)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마5:45)

하나님은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다(창 1:3). 빛은 에너지이다.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해온 석유, 석탄도 먼 옛날 동물이나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에너지를 축적하여 화석화된 것이다. 원자력은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핵을 분열시켜 얻은 것으로 ‘현대판 선악과’라 부르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문제는 그 모두가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석유, 석탄, 천연 가스는 현재 쓰는 대로 쓰면, 수십 년 정도 쓸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 원자력을 구세주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2030년 이후면 2000년보다 20배나 가격이 뛰고 가채연한도 2040년부터 줄다가 2070년이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다.

또 에너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가 오염되어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 또한 늘고 있다. 해마다 대기 중에 더해지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 가스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붕괴를 부추겨 홍수, 가뭄, 폭풍 등 기상재해와 사막화,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핑계로 ‘원자력’의 유혹에 빠진 이들이 있는데, 원전은 이미 세 차례의 대규모 사고가 말해주듯 언제고 커다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발전과정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과정도 큰 위협인데, 20여 년 동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은 폐기물 처분장은 중저준위 처분장으로, 고준위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없다.

물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이 그 대안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를 위해 애쓰는 이들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첫 날 만들어진 것이 ‘빛’이니만큼, 생명의 기본이 ‘에너지’임을 고백하며 지금의 위기를 신앙 안에서 풀어나가려 애쓰고 있다.

우선은 에너지를 낭비해온 삶을 회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려 애쓰고 있다. 전력 소비량 자체를 줄여야 하니, 에너지를 덜 써서 좀 더 춥고 덥게 지내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들이 실천 중에 주목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력 공급량의 27%나 되는 54기의 원전 모두를 멈추고도 큰 충격 없이 일상을 살아낸 일본인들의 삶이다.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다. 자

신이 누리는 것이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하거나, 공기와 물과 흙을 오염시켜 회복 불가능하게 하고 여러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된다면... 더불어 이들이 애쓰는 부분은, ‘기후붕괴는 물론 원전에 의한 방사능 위협이 얼마나 큰지’를 성찰하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햇빛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햇빛에서 얻는다’는 교회의 신앙고백의 연장이다.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에 비치는 햇빛만 잘 활용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가로세로 1m면 햇빛으로 연간 1,300kWh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석유로 환산하면 130리터). 남한 땅에 쏟아지는 햇빛을 다 합하면 1년에 무려 800억 배럴(1배럴 = 159리터)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 양의 100배나 되는 양이다(1인당 석유소비량 = 2,572리터).


독일의 경우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후에는 물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체 발전량의 30%나 되는 원전을 2017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우리는 꿀수 없는 꿈일까?

우리도 가능하다. 독일에서 시민들이 지금껏 ‘에너지 협동조합’을 586개(2011년 현재)나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듯, 우리나라도 시민들이 단순한 전기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도록 ‘에너지 협동조합’의 길을 열어준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그러면 교회 지붕과 옥상마다 햇빛발전소가 세워질 것이고, 마당에는 소형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더불어 단열성이 떨어지는 벽면을 바꾸고, 창틀도 고밀도 단열 창으로 바꾸어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 높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난방에너지의 50%까지 줄 것이다. 조명을 고효율 혹은 LED로 교체하여 30~40%의 전기 소비

도 줄일 것이다. 농촌에 있는 교회라면 땅으로 가야 할 똥, 오줌, 그리고 폐식용유와 음식찌꺼기를 모아 바이오 가스와 거름을 만들어 쓸 것이다.

그로써 교회가 있는 마을은 오스트리아 시골마을이 이룬 기적을 이룰 것이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인 무레크 마을은 주민 1,700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70%를 직접 생산하고, 남은 에너지는 인근 마을로 판매하고 있다. 1989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도해 유채씨와 폐식용유를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간벌목과 폐목재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축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돌리고 있다. 무엇보다 마을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은 모두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기에, 수익과 비용이 마을 내부에서 순환된다.

2013년 새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에 의존해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길 기도한다. “에너지를 아끼자. 태양의 힘을 활용하자. 이로써 삶의 가치를 높이자.” 하나님의 태양은 지금도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것을 골고루 충분히 채우고 있다. 

돌봄으로 지키는 생명

‘무연사회’를 살아가며

글 | 이윤숙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돌봄’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

얼마 전 지하 단칸방에서 세 명의 자매들이 거의 굶은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있었으나 전혀 돌보아주지 않았고 발견될 때는 심한 영양실조로 골다공증에 하반신 마비까지 온 상태였다. 우리 사회에 어느 샌가 흔하게 등장하는 뉴스가 ‘~한 지 얼마 만에 ~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더욱더 빈번해진 뉴스는 ‘죽은 지 ~년 만에 백골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들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목을 매 숨진 지 6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아무도 방문하지 않은 그의 방안에는 2006년의 달력이 걸려 있었다 한다. 또 지난해 12월엔 30대 여성이 굶어 죽은 후 7개월 만에 발견되었고, 창문도 없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젊은 청년이 침대에 혼자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70년대 여자 배우 스타가, 명예퇴직으로 밀려난 중년남성이, 기러기아빠로 외롭게 살았던 대학교수가 죽은 지 한참 만에 발견된다.

‘혼자서 죽음을 맞고 시신이 사망한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부른다. 한 때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고독사’가 이제 그리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패한 시체로부터 악취가

진동할 때까지, 죽은 몸이 오래 지나고 지나 백골이 될 때까지 이들은 아무런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했다. 빛 독촉장과 각종 고지서, 신문만이 이들 앞에 쌓여갈 뿐이었다.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아무도 애도하는 이 없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세상과, 이웃과, 가족들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야 했다.

이렇게 세상과 이어진 끈이 끊어진 채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사회를 일본의 NHK는 ‘무연사회(無縁社會)’라고 이름 붙였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이렇게 고립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연간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한 때는 누구의 자식이며 형제였고, 직장동료이며 이웃이었던 그들은 어느새 세상과 단절되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없이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죽는다. 그리고 방치된 채 발견된 사체도 유품도 직접 찾아와 거두지 않은 채 전문 처리업자에 의해 정리된다. 한 사람의 시간과 추억이 담긴 사진들, 편지들도 그 속에 함께 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폐기된다.

‘무연’으로 돌아가는 사회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일본사회의 일만이 아니게 되었다. NHK는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고 만혼·미

혼 추세가 급증하는 한국이 일본과 다를 게 없다”라고까지 했다.

‘무연사회’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관심을 주고받으며 서로 돌보고 지지해주는 일이 드물어지고 타인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끼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이다. 무연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힘을 받기보다 소극적으로 누군가의 짐이 되거나 폐가 되기를 거부하고 싶어 하며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도 귀찮고 힘든 일로만 생각한다. 무연사회의 징후로서 우리는 이미 ‘히키고모리(은둔형 외톨이)’, ‘잉여인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고통을 여기저기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연사회의 문제는 단지 고독사나 히키고모리 등의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묻지마식 범죄’들도 가족과 직장에서 멀어져 고립감을 느낀 사람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이기도 하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자살률도, 관심을 가져주고 들어주는 돌봐주는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절망적 선택인 경우가 많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하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 최첨단의 IT기술과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과 지연으로 이어진 친밀한 관계들이 여러 이유로 단절된다. 비정규직이 늘어가는 불완전 고용과 만성적인 청년 실업, 끝없는 입시경쟁과 정리해고의 위협은 삼포세대(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새로운 층을 형성하였다. 한 사회를 잇고 새로운 세대를 재생산하는 근본적 일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세대, 누군가를 사랑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사회를 이어주는 너무나 당연한 관계 맺기가 삶의 버거운 짐이 되어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을 시간조차 없이 끝없는

경쟁 속에 내몰려야 하는 사회에서 가족은 버거운 짐이거나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가족의 붕괴는 바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보살핌이 사라짐을 뜻한다.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많은 상품가치로 존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경쟁에 실패한 사람은 가족에게서조차 이른바 ‘잉여인간’이 되어 관계맺는 대상에서 탈락되어 혼자 살고 혼자 죽어야 하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연사회’의 본질이다.

서로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한 사람의 버거운 의무가 되거나 누구를 보살피는 일이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되는 사회는 삭막하고 생기 없는 사회이다. 나누고 보살피고 돌보며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생기 넘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성에게만 전가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화시키는 일도 중요할 것이고 복지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공동체적 삶의 조건’을 회복하는 일이다. 물론 그 공동체는 막연히 향수하는 산업화 이전의 공동체성과는 다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급한 것이 1차적이고 친밀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 아닐까 한다. 삼포세대의 절망은 더 이상 ‘가족을 이루거나 지탱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이기도 하다.

독일의 저술가인 프랑크 슈르마허는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동체를 가장 깊은 내면에서 결속시키는 일은 시장이나 국가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게 급선무다. 부모와 자식이라면 돈이 걸려있거나, 인정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는 행동, 너무나 당연하기에 혼장도, 사회보험도 필요하지 않은 행동, 그러나 (미래에는) 부족한 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당연함!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힘이다.”

평화구축과 여성의 역할

글 | 최수산나(연합회 평화나눔팀 부장)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담은 최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이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분쟁 예방과 분쟁 이후 재건 과정 등 평화구축 관련 활동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 분쟁 해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 분쟁 지역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것,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해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무력 분쟁 지역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결의는 200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무력 분쟁과 여성 폭력

전쟁과 분쟁의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은 국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전쟁 속에서 누구나 피해를 당하지만 여성과 여아들은 참혹한 성폭력의 피해로 심각한 고통의 상황을 맞게 된다. 성폭력의 피해는 전쟁 중으로 한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도 악순환은 지속된다. 강제 임신, 질병 등의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지속되는 폭력적 사회구조와 복원되지 않은 사회적 인프라 속에서 성매매 등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왜곡된 사회적

낙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성폭력이 전쟁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며 여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던 역사적 경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90년대 이후 무력분쟁지역에서 국가 혹은 폭압적 권력에 의해 대규모로 발생한 여성 폭력 문제들이 가시화되면서 국제 규범들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추진되어왔다. 1993년 유엔 총회의 여성폭력철폐선언은 폭력의 형태를 가족, 공동체,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무력 분쟁 아래 여성이 폭력 행위에 취약함을 명백히 인정하였으며, 같은 해 있었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인권선언에서는 여성인권 침해가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규정임을 천명하였다.

1995년 제4차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은 전쟁수단으로서의 성폭력, 성노예, 강제임신 등으로 인해 여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인정하며,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은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가 전쟁범죄이고 비인도적인 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바 있다.

평화적 관점 강화

이렇게 분쟁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며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사회적 차별

과 불평등을 경험하며, 와해된 체제들을 복구해나가는 평화구축 과정에도 참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쟁과 무력 분쟁을 통해 상처받은 여성들이 이러한 과정에서도 배제된다면 여성폭력과 젠더 폭력의 문제, 여성인권과 성평등의 문제 등을 여성의 시각에서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젠더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 평화적 관점을 강화하고 평화적 전망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력 분쟁과 전쟁에서의 여성, 평화, 안보의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다루기 위한 세계 여성들의 목소리가 유엔 안보리에 반영되어 결의안 채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후속 조치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후속 결의로 유엔 안보리의 4가지 보충적 결의안들이 채택되었다. 결의 1820호(2008. 6.), 결의 1888호(2009. 9.), 결의 1889호(2009. 10.), 결의 1960호(2010. 12.)은 무력 분쟁 및 이후의 여성 폭력 근절과 처벌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내준다. 1325호를 포함한 이 결의문들의 핵심 목표는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고 젠더관점을 통합할 것, 여성과 여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성폭력과 불처벌(impunity)을 종식할 것, 책임 시스템을 제공할 것 등이다. 유엔은 2010년 결의1889호에 따라 예방, 참여, 보호, 구호 및 회복이라는 4가지 분야로 구성된 글로벌 지표를 개발하고 결의문 1325호 이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2월 현재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국가는 총37개국에 달한다.


한국에서의 1325

2013년은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은 분쟁국은 아니지만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상황이 평화와 통일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게 한다.

현재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1325호 관심국 그룹의 일원, UN Women의 집행이사국이며, 더구나 유엔사무총장 배출국에, 평화유지활동 지원경비 상위 10위국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의무인 1325 이

행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하지만 통일·외교·국방 분야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자문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도 및 대표성이 낮고, 책정된 성인지 예산도 낮은 편이다. 다행히 최근 외교통상부 등에서 1325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1325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은 평화와 안보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 여성과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YWCA,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단체들이 1325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여성과 시민을 위한 1325 교육을 진행하며,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참여와 모니터 및 평가 활동을 통해 정부, 의회 국제사회와 협력을 모색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한국Y는 2012년 11월 세계YWCA ITI대회에서 '여성폭력추방 및 평화구축'의 주제 하에 1325 워크숍에 이어 한반도 평화 염원 DMZ 순례를 진행하였다.

국내 1325 수립을 위한 세부 이행 과제들을 민관 협력으로 수립해나감에 있어,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체계 확립,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탈북민 지원 정책 제언, 남북 민간 여성 교류의 지원과 확대 등을 위한 YWCA의 운동들을 전개하고 평화부문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주체, 영역,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여성, 평화, 통일이 분절되지 않고 YWCA 평화운동의 축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 공동체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봐?

글 | 배정미 (연합회 돌봄과살림팀 부장)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아프리카에나 있을 법한 기린 다섯 마리가, 각각 말머리표를 머리에 매단 채 '5명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광고물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이 봄!'이라는 언론매체의 기사나 방송보도를 통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불과 1개월 여 만에 신규 협동조합이 160여개에 이른다는 소식도 들린다.

연합회는 지난 1월 25일(금) 약 30여개 회원YWCA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이해와 실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협력과의 박창환 과장의 '협동조합 이해와 정책방향', (재)동천 양동수 변호사의 '협동조합 전환 절차'에 대한 강의 후 질의응답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회원Y의 주된 관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어 노동자로서의 기본 대우도 받지 못하는 1만 2천여 명의 YWCA 돌봄미 회원들이 최소한의 법적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직형태인가?

둘째, YWCA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제반 교육과 인큐베이팅, 경영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날, 두 강사는 매우 훌륭한 명강의를 제공했음에도 회원Y 실무자들은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회원Y가 우리가 전제한 관심 질문 두 가지 중, 둘째 질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회원Y가 돌봄미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려는 협동조합의 조직 목적에 대한 차이 때문이다. 즉, 회원Y는 협동조합 고유의 가치를 순전히 따르기보다는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돌봄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돌파구로 협동조합을 선택한 데서 오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날 워크숍 이후,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기독교여성단체라는 정체성 때문에 협동조합 운동이 어려울 수 있다', '당사자들이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협동조합은 성공하기 어렵다', '협동조합은 지역 내에서 단체 간 협동과 연대가 기본인데, 과연 회원Y가 지역운동체로서의 역할

에 충실한가?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연합회가 회원Y의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에 직면해 협동조합운동을 제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돌봄운동의 목적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목적 전치 현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공동체 실현을 위해 돌봄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료직업소개사업, 협동조합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는데, 수단이 어느 새 목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에 고민하게 된다.

90년 역사를 거슬러 오는 동안 10만여 명의 회원조직으로 성장한 YWCA의 공동체정신 안에 이미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내재돼 있다고 자신한 데서 비롯된다. 이른바 '오래된 미래'가 우리 안에 있다. 즉,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한 YWCA 목적문에 이미 협동조합의 가치가 녹아 있다. 다만, YWCA가 우리 사회의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리더십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을 자랑하지만, 돌봄회원들에게는 순종과 봉사정신을 강조하면서 일반회원과 차이를 두고 차별했던 것은 아닐까? 되짚어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돌봄미들이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될 터이나 현행법에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위법성을 해소하면서 Y의 그리스도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 협동조합이라 판단한다.

2013년 현재 연합회는 법인전환이 필수적인 사회적기업은 물론 몇몇 시범회원Y와 협동조합운동 전개를 위한 세부 공정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회원Y와 돌봄사업 수행 목적을 재정립하는 한편, 회원Y의 돌봄사업 목적에 따라 수행가능한 돌봄운동 전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가 나무를 세울 수는 없다. 그저 심고, 보살피고, 시간이 흘러 나무가 되길 기다릴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을 촉진할 수는 있다. 시간(time) 속에 살지만 시간이 없는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시대(times)를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T.S 엘리엇의 말처럼 한국YWCA는 90년을 지나 10년후 100주년에 이땅에 구현될 '그리스도 공동체'를 그리며 지금,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한다. 



1884년 12월, 영국의 공업도시 로치데일 직물공장의 28명 노동자는 1년에 1파운드씩의 출자금을 모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밀가루나 버터 등의 식료품을 공동구입하기 위함인데, 점포를 만들려고 로치데일 공정개혁자 조합을 만들었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 탄생된 것이다.



영국 로치데일에서부터 시작된 협동조합은 오늘날 세계 103개국, 230여 개 단체가 농·수산업, 소비자 소매, 은행, 보건, 주택, 보험,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로치데일 토드거리의 조그만 가게였던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현재는 박물관이 되었으며, 협동조합운동을 고민하는 많은 활동가들에게 산교육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폭력 추방, 정의 실현” (End Violence, Demand Justice) 세계YWCA, 여성폭력 추방 위해 일어난다

글 |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 세계YWCA이사, 성균관대 번역학과 교수)

세계YWCA는 연이어 인도에서 발생한 잔혹한 여성폭력, 강간 살해 사건을 접하며, 지난 1월 11일 ‘폭력추방, 정의 실현(End Violence, Demand Justice)’ 이란 제목의 성명을 홈페이지(<http://www.worldywca.org/>)에 발표했다. 지금 이 시간, 인도 YWCA 사무총장 레일라 빠샤(Leila Passah)는 “더 이상은 안 된다.”(Enough is enough)는 구호를 외치며, 세계를 향해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세계Y가 벌이는 청소년 폭력추방운동의 표어인 ‘폭력은 안 돼! (Say No to Violence)’ 를 떠오르게 하는 외침을 통해 빠샤 사무총장은 “세계는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공동체, 공공장소, 도시와 시골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외치며 많은 인도 여성들이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똑같은 유형의 버스 내 집단성폭력을 당하고 살해당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기막힌 일이었다.

UN여성위원회와 세계YWCA는 만연된 여성폭력, 또한 매 분(分)마다 반복되는 참기 어려운 여성과 소녀에게 가해지는 폭력 현실을 규탄하며, 어느 때보다도 VAW (Violence Against Women)운동 확대와 지속성의 절실함을 주장해 왔다. 유엔 여성위원회(UNIFEM) 2008년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여성 10명중 6~7명이 때를 맞거나, 성폭력 또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폭력의 희생자이다.

세계 70 여 개 국의 YWCA는 여성폭력추방운동을 중점 사업으로 적극적인 추방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잠비아와 스리랑카 YWCA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은신처와 쉼터를 제공하고, 핀란드, 벨라루스, 알바니아와 사모아는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6개 회원YWCA에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과 쉼터 제공은 물론 가해자 예방 교육까지 진행하는 활발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인 해악이 반복 자행되고 있다면 이는 범세계적인 공조로 이 악을 이겨내고 제거해야 한다. 바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 그 중 하나라는 현실을 YWCA는 일찍이 인식했고, 지난 2007년에 이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여성(Women, Creating a Safe World)’ 이란 슬로건으로 모인 2011세계대회에서도 VAW운동을 다시 세계Y 3대 중점 사업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125 회원국 Y의 지역 YWCA들은 세계 도처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추방을 위한 주창운동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YWCA가 주창한 세계 운동 정책과 방향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R1325) 실천을 기반으로 한다. 1982년 첫 회의를 한 이래 2012년 30주년을 맞이한 CEDAW에는 전 세계

23명의 ‘투사정신’ 이 강력한 여성운동 전문위원들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The Commission/or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Y는 UN에서 열리는 CEDAW 회의에 초청되어 긴급 국제 여성인권 문제를 놓고 함께 토론 한다. 또한, UNSCR 1325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성폭력과 특히 무력 갈등의 상황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 하기 위해 전 세계 유엔회원국이 ‘여성, 평화, 안전’을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에 힘쓰기로 약속한 결의문이다. 그러나, 국가들이 결의문 이행에 능장을 부리는 동안 VAW희생 여성과 소녀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극심했던 성폭력 살해사건에 대해 분명한 해결안을 내놓지 못했다. 우리 언론은 사건이 일어나도, VAW 근본 방지책이나 연구 결과를 내놓지도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보이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거나 하다못해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상세 기술에 더욱 매달리지 않았던가? 부끄러운 현실이다.

2012YWCA ITI로 그야말로 다행히 VAW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한국 YWCA가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한국 YWCA 차경에 회장은 한국Y 9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내 여성폭력추방에 대한 관심제고와 환기를 위해, 세계 YWCA 국제 운동 훈련 프로그램 2012YWCA ITI(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를 유치했다. ‘여성폭력 추방과 평화구축’ (VAW and Peace Building)이란 주제 아래, 세계 30 여 개 나라에서 온 50 여명의 참가자와 세계YWCA 실무자, 그리고 한국 YWCA는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의 다양성과 심각성의 현실을 일주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와 세계는 깊이 공유했다. 세계YWCA 회장 데보라 오스틴 토마스 (Dr. Deborah Austin-Thomas) 박사의 내한도 VAW 심각성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토마스 회장은 일간지, 주간지, 방송 등등,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다양성과 정책적 개선의 시급함을 한국사회에 알렸다.

세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폭력추방운동에 나서고 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을 돕는 시민운동을 벌이는 태국,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방지를 위해 일할 더 많은 여성 정치인 참여를 격려하는 부탄, 어린 소녀를 노예로 삼는 제도 ‘캄라리’ 를 여성들의 투쟁으로 폐지한 네팔.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은 VAW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아니, 폭력 방지와 재발 방지, 정책화와 실천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UNSCR 1325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정말 궁금하다. 캐나다 YWCA는 범국민 대상 VAW예방운동으로 “장미단추”(Rose Button)운동을 벌이고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YWCA는 “여성이 되어 보세요!”(In Her Shoes) 운동과 순례 전사로 폭력예방운동에 대한 시급함을 알리며 국가와 사회를 일깨우고 있다. 세계YWCA는 인도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모든 국가가 ‘CEDAW, UNSCR 1325’ 등등의 협약과 결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13년도 CSW 본회의의 주요 주제는 VAW이다.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는 2주간 제 57차 UN 여성지위 위원회(CSW, Commission of the Status of Women)가 열린다. CSW 본 회의에서는 첫 주 동안 3번의 패널토론이 있는데, 첫날 대주제가 “여성과 소녀들에 가해지는 폭력 추방과 예방”(Elimination and preven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이며, 이어지는 세 번의 패널 토론 중 두 번도 온전히 VAW 관련 주제이다.

세계는 VAW 문제를 놓고 깊이 대화하고 있다. 세계YWCA 사무총장 니랏자이 굼보즈만다 박사는 이번 성명을 통해 호소한다. “세계의 YWCA 자매들이여, 외치십시오. 폭력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어서도록, 여성의 현실이 제대로 존중을 받도록!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촛불을 밝혀 하나가 됩시다!” 한국사회가 또 한국YWCA가 여성과 소녀들에 가해지는 폭력에 더욱 민감해지고, 또 구체적인 행동강령 실천을 위해 좀 더 용감해져야 할 때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더 크게 외쳐야 할 때다. 

회원YWCA 신입사무총장, 그녀들의 마음 읽기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합회에서 2013년도 YWCA 신입사무총장 연수가 있었다.

이 날 조은영(마산Y), 강류안(사천Y), 최현자(익산Y), 남상인(인천Y), 반혜영(창원Y), 김은숙(목포Y), 이경자(평택Y), 송록희(부천Y)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YWCA 현장 최전선에 서게 된 YWCA 신입사무총장님들의 기대와 소망을 들어보았다. (정리: 편집실)

YWCA 신입사무총장으로 활동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남상인(인천Y) : 7년간 본부에서 대학Y, 홍보출판위원회 실무를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0년간 활동했다. 지역 환경과 여건에 따라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1년 간 목표는 자원지도자와 실무자와의 화합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목표를 두었다. 인천Y에서 해야 할 일은 이사회와 Y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은영(마산Y) : 지난 14년 동안 Y에서 받은 기운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보다 신앙적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 내가 마산Y에서 해야 할 역할은 '다리'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가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쓰임받는 달란트가 되도록 연결해주는 것이다. 또한 마산Y 활동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마산Y가 조금 더 체계화되고 역동적이면 좋겠다.

최현자(익산Y) : Y는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이고,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현

재 익산Y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나,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자원지도자, 활동가 모두를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 경청에 주안점을 두겠다. 지역에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찾아서 일하는 Y가 되고 싶다. Y-틴과 대학Y가 없는데, 청년운동에 중점을 두고 살리고 싶다. 그동안 익산Y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던 것 같다.

강류안(사천Y) : Y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사천Y의 물꼬를 어느 방향으로 터야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지 고민한다. 전 사무총장님의 노고에 흠 되지 않게 열심히 할 것이다. 또한 사천Y 활동가들의 마음, 자원지도자의 눈, 회원들의 손과 발이 되고 싶다. 사무총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박쥐스타일. 나를 사무총장으로 세워준 것은 통합과 소통으로 지역사회에 Y의 기반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반혜영(창원Y) : 부족한 점이 많은데 Y에서 오래된 사람이라고 사무총장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있어 Y의 운동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Y를 알아가겠다.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Y의 뿌리는 목적문에 있



왼쪽부터: 반혜영, 강류안



왼쪽부터: 최현자, 조은영, 남상인



왼쪽부터: 이경자, 송록희, 김은숙

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Y목적에 기반해야 한다. 현재 창원Y 이사회 수가 적는데, 많은 자원자들이 창원Y 운동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은숙(목포Y) : 이사과 실무자의 균형자가 사무총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Y의 사명과 정체성을 고민하게 된다. 시대적 사명과 지역적 사명을 잘 이루어내면 좋겠다. 목포Y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이 되는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

송록희(부천Y) : Y의 사무총장은 운동가이다. YWCA 목적문에 명시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Y가 될 수 있도록 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총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사, 실무자, 회원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무총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부천Y의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한 업무장악능력, Y운동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공부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회원들이 Y를 사랑해서 자부심을 갖고 Y회원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부천Y의 부활을 기대한다.

이경자(평택Y) : Y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싶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교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택Y의 경우, 평택Y의 정체성을 찾고 확고히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Y다움'을 찾고 싶다. 회원운동에 주력하고 싶다. YWCA 목적문을

기본으로, Y목적에 따라 활동할 것이다. 평택Y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큰 문제없이 오랜 기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임기를 마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남상인(인천Y) : 일을 잘했다는 평보다는 Y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조은영(마산Y) : 나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좋겠다.

강류안(사천Y) :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무총장이었다는 평을 듣고 싶다.

최현자(익산Y) : 성실하고 따뜻한 사무총장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반혜영(창원Y) :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단지 사람들에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

김은숙(목포Y) :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송록희(부천Y) : 부천Y의 부활을 기뻐하는 회원들의 얼굴을 마음 한가득 안고,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이경자(평택Y) : 평택Y가 Y다워졌다는 말을 듣고 싶다.

회원Y 정기총회 신임회장 선출

◆ 내용순서
이름 / 생년월일 / Y경력



강릉 고문희
1. 1949. 5. 17
2. 강릉Y 이사(2006~2007)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2008~2011)



서울 차귀숙
1. 1944. 7. 30
2. 서울Y 이사(1992~현재)
서울Y 부회장(2009~2012)



논산 윤종순
1. 1957. 3. 6
2. 논산Y 부회장(2011~2012)



성남 박은경
1. 1958. 11. 29
2. 성남Y 이사(2005~2012)
성남Y 부회장(2007~2008, 2011~2012)



동해 박경옥
1. 1961. 10. 4
2. 동해Y 이사(2005~2012)
동해Y 부회장(2009~2012)



속초 이행재
1. 1962. 11. 7
2. 속초Y 이사(1999~현재)



부산 하선규
1. 1946. 3. 20
2. 부산Y 제7대 사무총장(1990~2006)
부산Y 생활협동조합 이사(2006~현재)
부산Y 이사(2008~현재)
부산Y 부회장(2011~2013)
YWCA 복지사업단 이사(2011~현재)



수원 홍승화
1. 1955. 3. 21
2. 수원Y 이사(1996~현재)
수원Y 부회장(2001~2013. 1)



사천 조춘복
1. 1954. 8. 14
2. 삼천포Y 창립 멤버 입회(1988)
사천Y 이사(1988~현재)



안동 이순녀
1. 1955. 7. 22
2. 안동Y 창립 멤버(1995)
안동Y 이사(1995~현재)
안동Y 부회장(2009~2012)



안산 박성순
1. 1968. 8. 19
2. 안산Y 부회장(2009~2012)



진주 문옥자
1. 1961. 7. 4
2. 진주Y 이사(2004~현재)



양산 도말순
1. 1949. 4. 19
2. 양산Y 창립 멤버(2005)
양산Y 회장(2006~2010)



창원 김지숙
1. 1958. 2. 27
2. 창원Y 이사(1992~현재)
창원Y 회장(2005~2008)



울산 문상순
1. 1959. 9. 13
2. 울산Y 이사(2002~2012)
울산Y 부회장(2009~2012)



춘천 심정례
1. 1953. 4. 19
2. 춘천Y 이사(1999~2004)
춘천Y 부회장(2005~2012)



의정부 김순현
1. 1963. 9. 6
2. 의정부Y 독서 및 역사논술 지도자
(1994~1999)
의정부Y 이사(1999)
의정부Y 부회장(2010~2012)



충주 정숙자
1. 1949. 1. 3
2. 충주Y 이사(2009~2010)
충주Y 부회장(2010~2012)



인천 김용옥
1. 1953. 2. 25
2. 뉴욕Y (Flushing Branch)
이사(1982~1999)
인천Y 이사(2006~현재)
인천Y 부회장(2009~2012)



파주 박재숙
1. 1962. 11. 20
2. 파주Y 이사(1997~현재)
파주Y 회장(2007)



제주 박은경
1. 1957. 9. 20
2. 제주Y 청소년 위원장(2004)
제주Y 이사(2004~현재)



포항 김인자
1. 1945. 5. 18
2. 포항Y 이사(2000)

하나를 넘어 함께하는 우리로 함께 하는 다문화

YWCA연합회는 2013년 한해 동안 52주에 걸쳐 국민일보 32면 미션 라이프 지면을 통해 YWCA 운동 정신과 현장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는 지난 1월 '다문화사회의 소통'을 주제로 4주 간 실렸던 기사를 요약하여 실는다. (정리: 편집실)

다문화사회의 소통

1월 3일 (목) _ 국민일보

*낮선 이국... 언어장벽·편견 최대의 적
한때 좌절했던 베트남 여성 김빈 씨
가족·이웃·사회단체 등 따뜻한 도움
YWCA 인터넷방송 아나운서 경험 활기찬 삶*

한국에 온지 7년째 되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김빈 씨는 한국에서 베트남어방송 아나운서를 경험했다. 한국YWCA연합회가 결혼이민여성들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실시간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해 2011년 11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진행한 1기 YWCA 베트남 방송에 참가한 것이다. 낮선 문화와 사람들의 시선에 눈물지었던 그녀는 이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희망이자 행복이다”라고 말한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가족들의 힘이 컸다.

다문화사회라고 하여 거창하게 제도를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결혼이민여성들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과 소통할 창을 언제든지 활짝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YWCA가 만나는 세상〉

한국YWCA는 여성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표방하며 지난 2007년부터 “한 하늘 한 땅” 결혼이민여성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전국의 회원YWCA에서 다문화 ‘결혼이민여성

한국정착’ 사업을 벌였다. ‘결혼이민여성의 소통’을 위해 28개 지역 회원YWCA가 부부간, 고부간,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결혼이민여성 16만인. 우리사회의 다양한 구성의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소통하는 지역사회에서 일도 생활도, 문화도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란다. 사회적인식의 편견과 차별을 넘어 ‘함께하는 우리로’ 우리사회 가운데 사는 결혼이민여성들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의 공존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결혼이민성과 취업

1월 10일 (목) _ 국민일보

*가난 벗어나려 시집 왔지만
기대 밖인 경제현실·차가운 시선에
많은 이민여성들 적응 힘들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의 일부는 결혼을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다. 한국 생활 적응 후 일 자리를 찾으려는 데 문은 좁기만 하다. 안산YWCA 사회적기업 ‘월드맘 영어교실’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읽고 행동에 나선 결혼이민여성들의 친구다. 월드맘을 총괄하는 이미혜 씨는, “여기서 일하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은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한다. “자격과 능력을 다 갖추었는데도 국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이 보유한 능력을 발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어요.” 월드맘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갖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YWCA가 만나는 세상〉

한국YWCA가 전국의 결혼이민여성 3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이민여성 직업의식조사’ 결과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여성은 조사대상의 96.2%(꼭 취업하고 싶다 52.3%, 기회가 되면 취업하고 싶다 43.9%)로 나타났다. YWCA는 전국 30개 지역에서 300여 명의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하였다. 누구에게나 내 일과 일터를 갖는 것은 소중하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업을 위한 소통의 창인 이유이다.

W세대가 본 ‘다문화’ 2세대

1월 17일 (목) _ 국민일보

*친구들의 편견·따돌림에 입은 상처
터 놓고 얘기만 나눠도 절반은 치유
멘토링 프로그램 ‘르네상스’ 만들어
악기 배우며 대화... ‘마음의 문’ 활짝*

나는 오랜 생각 끝에 2010년에 YWCA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동아리 ‘르네상스’를 만들었다. 서울에 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실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다보니 내성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나도 이 아이들을 수혜의 대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나와 함께 이 시대를 걸어가야 하는 동시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시작된 ‘르네상스’가 어느덧 ‘나와는 다른 이들’을 대하는 차가운 내 시선과 마음을 어루만졌다. (한지이 서울Y 대학생협의회 회장)

〈YWCA가 만나는 세상〉

지구시민으로서 공존의 감각을 키우는 출발은 다문화를 직접 만나고 경험해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여기 한국과 다문화 사이의 접점을 찾아 길을 떠나는 청년들을 위한 콘텐츠가

있다. 대학생 해외봉사프로그램인 ‘탄자니아 IT 프로그램’과 ‘아시아 여성! 연대를 통해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경험하지만, 차이를 통해 나와 나의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된 캄보디아 결혼이민여성 초은씨

1월 24일 (목) _ 국민일보

*스무살 연상의 남편 술마시면 폭력
벧속 아이 지키려 때리는 남편 흥기로 맞서
대구YWCA ‘정당방위’ 구명에 사면 돼
대학장학금·생활비까지 지원 새 삶 부추*

폭력 남편에 맞선 초은 씨(가명)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2010년 8월 특별사면대상자로 출감된 후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결혼이민여성에게 대한 가정폭력 사건은 남편의 언어폭력, 구타를 넘어서서 그 수준이 죽음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어가 어눌한 결혼이민여성은 남편과 의사소통 자체가 문제다. 대구Y 김세형 차장은 “한두 해 살면서 한국말을 습득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지라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화는 여전하다”고 말한다. 남편들은 못사는 나라의 사람을 많은 돈을 주고 사왔다는 생각을 하며 아내를 상품으로 보기도 한다. 이들 여성에게는 가장장적이나 폭력적으로 대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가정폭력을 쉽게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구Y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은 씨를 지원하고 있다.

〈YWCA가 만나는 세상〉

큰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온 초은이였으나 상처와 고통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그녀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이전의 꿈이 한국 국적과 남편을 통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꿈이었다면, 이번 꿈은 초은 스스로 이루어내는 자발적인 꿈이다. 초은의 꿈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대구Y와 한국Y가 그 여정의 통로가 되었다. (배영자 대구Y 중경회장)

공감능력과 협동력 지닌 실천하는 리더가 Y다운 리더

글 | 편집실



YWCA 목적문은 '젊은 여성들이'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는 YWCA 활동의 주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YWCA 운동이 청년성에 근거한 운동임을 보여준다. YWCA 활동이 회원중심으로 회원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에 의해 움직이고 성장하고 발전할 때 그 목적이 바르게 설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YWCA가 '젊은이들의 주체적인 활동' 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YWCA의 활동이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을 위한 운동이 중요하며 젊은이들의 의견과 참여가 활발해야 YWCA의 운동이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신체적 젊음의 의미 외에도 늘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도전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시대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역동적인 힘은 지속적인 YWCA 운동의 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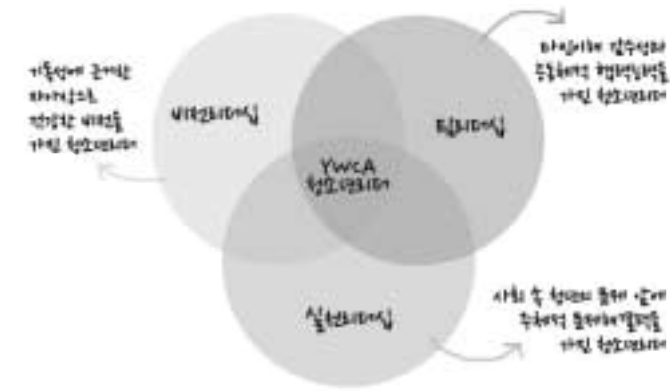
학업을 위해 많은 것이 유예된 삶을 사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공동체 활동 참여율이 0.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성적과 학업 중심의 사회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청소년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가장 길지만 학업 흥미도는 가장 낮으며, 자신감과 소속감이 없어 일상 생활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2010년 학교의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50% 이하이며,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수는 서울시만 해도 일년에 2만 명이상이 되고 전국적으로 약 9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벗어나 정상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는 거의 없다. 그 몫을 가정

에서 감당하기에는 시간, 경제력, 프로그램의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학교를 선택한다.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하위군에 속한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이 사회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경제논리로 일관된 획일화된 방식과 경쟁 사회 속에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를 경쟁하며 살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불안한 날갯짓만 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년들을 그 경쟁에 밀어 넣고 있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의 현 주소이고, 우리의 현재이며, 우리의 불안한 미래이기도 하다.

인성과 돌봄의 가치, 공동체적 협업을 배우는 기회 대신 서열화와 등급화로 경쟁에 순응하는 청소년을 길러내는 학교교육과 규범이나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 대신 성적을 관리하는 역할로 부모역할이 제한되는 가정교육, 형식화되고 수단화되어진 청소년 활동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시민성, 주체성을 통한 진로와 미래설계에 적극적인 역량을 가진 청소년 육성기반 부재는 청년운동으로서의 키다리운동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키다리학교 목표



이젠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YWCA운동의 중심으로 다시금 서야 할 때가 되었다.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성취해야 할 어떠한 목표가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인 것임을 아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삶의 리더십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바깥에서 주어지는 존재성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에 앞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발견하려는 팀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존재감 있는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은사를 개발하면서 성장과 기쁨을 발견하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주체적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실천하는 실천·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YWCA는 청년운동의 목표를 키다리, '키우자 Y다운 리더' 라는 개념 하에 90년간 YWCA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리더십의 핵심 요소인 비전리더십, 팀리더십, 실천리더십을 바탕으로 키다리학교에서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키다리학교는 서로 배우고, 전파하고, 청년의 영혼을 치유하는 운동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를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서 나눔으로써 여러 지체가 서로 함께 돌보

게 하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청년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키다리학교 첫째로 내면의 문제와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앞에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청년리더를 키우며, 둘째 공동체의식과 시민성을 가지고 자기진로와 미래설계를 하는 청년리더, 셋째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리더를 키우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YWCA다운 청년리더' 라고 생각한다.

자기 정체성을 보다 참여적이고,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여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실천하는 청년들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들이 YWCA 운동의 주체가 되는 청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YWCA 키다리 운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고 자기의 재능을 찾는 청소년들이 또 다른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을 위해 자기의 재능으로 이 사회에 공헌하는 물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Y다운 리더십을 가진 청년을 위한 키다리 운동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사회 전역에서 '재능' 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후원자가 되어주고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고난의 땅 팔레스타인, 한국 그리스도인들 관심 가져야

글 | 이윤희 (한국YW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사무국장)

에큐메니컬운동의 미래

한국 에큐메니컬운동은 삶에 지치고 어려운 이웃들의 그늘막이었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 개신교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개독교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젊은이와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게토(Ghetto)가 되었고 정치세력화 되었다는 우려를 듣고 있다. 더구나 2013년 WCC 부산총회를 앞두고 한국 에큐메니컬운동이 지금 몹시 혼란스럽다. '한국 에큐메니컬운동의 비전과 미래는 무엇인가?', '이제 이에 대해 누군가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평화운동은 한국 에큐메니컬운동의 미래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팔레스타인을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은데?', '굶어 죽어가는 북쪽 형제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잘못인가?', '이슬람과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종종 받기 쉽다. 오히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은 2000년여 동안의 디아스포라(Diaspora)를 끝낸 정의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장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다. 그러

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고민은 이 질문으로부터 온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서의 이스라엘은 같은 것인가?', '이런 신앙이 지금의 물질과 물량중심의 확장을 믿음이라 말하는 한국 개신교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평화운동은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팔레스타인이 던지는 신학적 주제

팔레스타인은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신앙과 신학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선택된 백성과 약속의 땅',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의 관계와 갈등', '다윗의 유대국가 건설과정에서의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예수의 이스라엘 이해', '바울의 기독교 선교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등 성서를 새롭게 읽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의 땅'이라는 신앙관으로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수 많은 전쟁과 학살을 지배자의 시각에서 정당화해 오지는 않았는지, 소외된 이웃에 무관심하고 우리의 덩치를 키우는 것에만 관심하며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거부해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팔레스타인에서 2천년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이들의 고백을 통해 한국 기독교를 다시 성찰할 힘을 회복해야 한다.

평화는 고난받는 이들의 연대로부터

한반도는 일본 제국에 의해 36년의 식민지와 인종차별, 뒤이은 전쟁과 분단, 부패한 정치권력과 독재의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20세기 초 제국질서의 확장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수난의 역사이자 이를 극복해 온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강대국의 침예한 국제 정치질서의 한복판에 있고, 분단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정전 60주년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반도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는 결코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이를 대변해 온 이스라엘 시온이즘에 의해 식민지와 인종차별의 땅이 되었다. 지난 해 11월 20일자, 세계YWCA와 팔레스타인YWCA에 의해 발표된 성명은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700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전 세계에 난민으로 살고 있으며, 이것은 전 세계 난민 1,500만 명의 반을 차지하는 숫자이다. 9M 높이의 735KM에 달하는 분리장벽에 의해 8개의 지역에 갇혀 살고 있으며 수자원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과 이동이 통제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하고 있다.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고통받고 힘없는 이들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예수는 '세상의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연대와 협력에 의한 평화다. 한반도 평화와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이들의 연대와 협력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응답 - 팔레스타인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NCC,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한국 에큐메니컬 주요 그룹들은 지난해 11월 29일, 팔레스타



인과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식민지배, 국제법과 UN의 권고를 무시한 불법적인 정착촌 건설을 반대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죄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팔레스타인 평화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기로 하고, 우선 가자지구 지원모금운동, 대안성지순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신학 심포지움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WCC 부산총회에서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와서 보라!'

한국 기독교인들은 매년 3만~4만 명이 성지순례를 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위험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예수의 땅 예루살렘,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보라!' 세계 에큐메니컬운동 뿐만 아니라 한국 에큐메니컬운동을 만들어 왔던 YWCA가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평화운동을 통해 위기의 한국 에큐메니컬운동의 새로운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콘서트 고어

하은경 저 / 열음사 /
2012년 12월 31일 출간

연합회 평화나눔팀 하은경 위원의 신작. 좋아하는 음악가의 연주를 직접 듣는 행복, 음악가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설렘, 사인 한 장 받으려고 기나긴 줄도 마다않는 즐거움, 1년 혹은 몇 개월 뒤의 연주회를 기다리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껴봤다면 당신은 이미 콘서트 고어이다. 콘서트 고어에게 음악을 들으러 공연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까닭은 그것이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기 때문이다. 음악은 귀로 들리지만 온몸을 전율케 하고, 잠시 지나는 시간이나 머리에 생생하게 새겨지고, 감동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음악치료사인 저자는 음악은 무언의 소통이며, 사랑의 나눔이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함께 설레고, 함께 긴장하며, 함께 짜릿한 감동을 맛보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음악회에 가자고 청한다. 음악은 치료사가 사용해야만 치료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음악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극을 주어 치료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2033 미래 세계사

비르지니 레송 지음 / 권지현 남윤지 옮김
휴머니스트 / 2013년 1월 7일 출간

인구학을 토대로 풀어 쓴 고차원적 미래 전망 보고서 『2033 미래 세계사』. 국제관계 전문가로, 지정학 및 미래학 관련 민간단체인 정치지리연구소(LEPAC)를 이끌고 있는 저자 비르지니 레송이 앞으로 20년 후로 다가온 2033년의 미래를 지구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예측 가능한 미래 세계사를 제시하였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속도는 느리지만 세계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혁명, 즉 '인구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가별, 대륙별, 주제별로 살펴보고, 농업, 식량, 물 문제와 같은 지구촌 재앙과 과잉인구와의 상관관계를 들려준다. 더불어 지금의 성장 속도가 지속될 때 벌어질 위기일발의 지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풀고자 고심하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경제와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

석지영 지음 / 송연수 옮김 / 북하우스
2013년 1월 10일 출간

하버드대 종신교수 석지영의 예술·인생·법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 2006년 한국계 최초로 하버드법대 교수로 임용되고, 2010년 아시아여성 최초로 하버드법대 종신교수로 선출된 이후 법률교육에 대한 창의적인 교수법과 새로운 발상으로 주목받는 저자가 자신을 만든 진정한 지식과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한국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저자의 성장과정과 저자가 선택한 길에 대한 답과 함께 자신의 기억에서 뚜렷하고 의미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것, 일을 놀이처럼 즐길 것,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할 것, 크진 작진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는데 온힘을 다할 것, 젊은이에게 조언자가 되어주고 스스로의 조언자도 구할 것 등 저자가 가슴 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원칙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금 저자를 형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 원래 저자의 배경이나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저자가 바랐던 열망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까지 생생하게 들려주며 진정한 공부란 무엇이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생명을 회복할 시간, 아직 있습니다

글 | 최이우 (종교교회 담임목사)

누가복음 13:1~9


오늘 본문은 기대했던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한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다. 한 포도원주인이 자기포도원에 열매를 기대하며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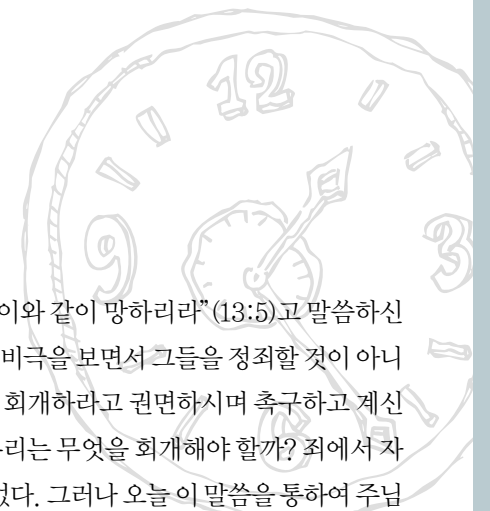
포도원주인이 자기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무슨 뜻일까? 이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셔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포도원에 한그루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과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 포도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무화과열매를 기대하시며 여느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나무라시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주인의 분노를 샀고 찍혀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포도원지기의 간청 때문이다(13:8). 한 해의 시간을 더 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때 가서 찍어버리라고 간청한다.

오늘 본문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을 맺고 있는데, 이는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첫째, 회개할 시간이다.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

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13:5)고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의 비극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며 촉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촉구하시는 회개는 ‘나답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임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왜 나를 남들만큼 만드시지 않으셨냐며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했다.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한 죄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주신 사람에게서 두 달란트 남기기를 기대하시지 않으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신 달란트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둘째, 근본을 회복할 시간이다.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13:8) 거름을 주면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나의 근본, 나의 뿌리에 더욱 관심하라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주셨다. 우리 삶에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열매도 열매이지만 잠시 후에 우리를 부르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연합회 소식

연합회 신년예배



1월 3일 연합회 강당에서 2013년을 여는 연합회 신년예배를 드렸다.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100년을 향한 출발점에 선 한국YWCA가 정의, 평화, 생명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2월 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2월 1일 오전 7시 30분에 월례아침기도회를 열었다. '생명을 회복할 시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이우 목사(종교교회)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 Y-틴 전국협의회

1월 15일부터 17일 버들캠핑장에서 2013 Y-틴 전국협의회회가 있었다. 16개 회원 Y-틴 회원



76명, 실무자 14명, 위원 4명 총 102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 활동 나눔, YWCA역사이해, 2013년 중점운동 선정, 중앙임원 선출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 p.6-7)

협동조합연구와 실천 워크숍



1월 25일 연합회 강당에서 '협동조합 이해와 실천 워크숍'이 있었다. 박창환 과장(기재부 협동조합협력과)이 '협동조합 이해와 정책방향', 양동수 변호사(재)동천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이어 '2013 산모신생아자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YWCA 대응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28개 회원 Y 담당자 약 50여명, 연합회 실무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자세한 내용 p.14-15)

키다리학교 활동나눔모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산 대부도에서 키다리학교 활동나눔모임이 있었다. 2012년 키다리학교 활동 내용 공유, 지역별 키다리학교 학생들과의 네트워킹, 2013년 키다리학교 활동제안 및 결의를 하였다. 한편, 이 모임에는 4개 회원Y(고양, 서울, 안양, 청주) 키다리학교 청소년 및 운영진, 연합회 실행위원, 실무자 포함 총 44명이 참석하였다.

한국YWCA 방송국 5기 시작

한국YWCA 방송국이 1월 7일부터 5기 방송을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5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나 운서가 방송을 진행한다. YWCA 정의, 평화, 생명 정신을 방송 시청자와 교감하며 나누는 방송을 만든다. 5기 방송을 통해 얻는 수익금도 YWCA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모금 운동에 보낼 예정이다. (www.afreeca.com/ywca1)

2013년도 YWCA 신입사무총장 연수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연합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YWCA 신입사무총장 연수가 있었다. 한국Y 행정 및 구조 이해, 운동정책 및 프로그램 이해, 사무총장 역할 이해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 및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천진 목사가 새벽종소리를 가지고 영성 훈련을 하였다. 이날 총 8명의 신입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동정

- 명진숙 연합회 복지사업단 국장 신규 채용 (2013.1.1)
- 조은영 마산YWCA 사무총장 취임 (2013. 2. 1)
- 강류안 사천YWCA 사무총장 취임 (2013. 2. 1)
- 최현자 익산YWCA 사무총장 취임 (2013.1.8)
- 남상인 인천YWCA 사무총장 취임 (2013. 2. 1)

북부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키다리학교 1기 활동보고 캠프

서울Y 키다리학교 1기는 청소년 9명과 위원 2명으로, 지난해 7월 18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인권을 주제로 활동했다. 키다리학교 1기는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4개 지역 키다리학교의 활동보고 캠프로 그 마무리를 함께 했다. 4개 지역의 기획 내용들과 실제 활동들을 나누면서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2기를 준비한다.

강남청소년수련관 연탄봉사 연합동아리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는 12월 29일 8개 동아리의 청소년 회원 52명이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의 소외된 어르신들 40세대에게 2,000장의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올해로 2년째 진행된 연탄봉사활동은 소외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과 함께 포근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청소년들도 한 해를 봉사로 마무리하니 보람되고 행복해한다.

인천 YWCA

이하나 간사

제43회 정기총회

인천Y는 1월 29일 인천Y 강당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이사 5명을 투표로 선출하고, 총회 직후 이사회를 열어 신임회장단으로 김용욱 회장, 김말숙·유승분 부회장을 선출하였다. 2012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심의를 마쳤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평생회원패 전달, 회원증모우수상, 20년·10년 봉사상, 10년근속상, 모범직

원상을 시상하고 장학증서 전달과 모범 Y-틴 회원을 표창하였다.

강릉 YWCA

김미란 간사

제25회 정기총회

강릉YWCA 제25회 정기총회가 1월 29일 Y회관에서 있었다. 예배에 이어 전배자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2012년 결산보고와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통과하였다. 신임이사 1명과 재신임이사 3명, 6명의 공천위원이 선출되었고, 정기총회 후 이사회에서 13대 회장으로 고문희 신임회장이 선출되었다. 강릉지역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강릉Y가 되길 기대한다.

동해 YWCA

김정은 간사

제25회 정기총회

동해YWCA 제25회 정기총회가 1월 21일 강당에서 있었다. 개회예배 이후 장지영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2012년 결산보고하고 201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헌장개정(안)채택과 신임·재신임 이사, 공천위원 인준과 선거의 시간을 가졌다. 3부 순서로 다과회 및 회원교제를 나누었다.

속초 YWCA

백수미 간사

제24회 정기총회

속초Y는 1월 29일 Y강당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내빈과 이사, 실무자, 회원 74명이 참석하여 2012년 결산과 2013년 사업계획 심의가 있었다. 또한 감사패와 평생회원패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5명의 신임이사가 선출되어 자원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였다.

경기

부천 YWCA

이지원 간사

제16회 정기총회

부천YWCA 제16회 정기총회가 1월 29일 부천Y에서 진행되었다. 2012년도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보고에 이어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2013년도 중점운동인 탈핵을 중심으로 한 생명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고, 돌봄협동조합 모델 마련을 위해 힘써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30대

신임이사를 비롯한 신임이사 두 분(최은희, 이인정)에 대한 인준, 공천위원 인준, 부천Y 현장개정안 인준이 이루어졌다.

돌봄회원 민들레 강좌

부천Y는 1월 25일 돌봄회원을 위한 민들레강좌 '건강한 내 몸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장유성 목사(군인교회 담임)가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습관과 고쳐야 할 습관 등에 대해 강의하고 돌봄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좌를 통해 돌봄회원들이 노동에 시달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자신을 소중히 대하면서 돌봄천사로서 활기찬 생활을 하길 바란다.

성남 YWCA

황정아 간사

한국어교실 종강식 및 송년모임



성남Y는 12월 21일 수준별 4개의 반으로 진행된 2012년 한국어교실 종강식을 하였다. 한 해동안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함께 공부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삼성전기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수원Y는 1월 22일 삼성전기 임직원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삼성전기 후원으로 독거 어르신들께 전달할 떡국떡 포장에 이어 환경교육과 EM발효액, 방향제를 만들었다. 이날 만든 EM발효액은 수원Y 부속시설인 소규모요양시설에 전달하였다.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제28회 정기총회

안산Y는 1월 24일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사업 결산과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진행하고, 신임이사 2명을 선출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안산Y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환경동아리 참살이와 함께하는 '초록으로 그리는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열었다.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자원봉사 소양교육, 에너지 절약교육, 대안생리대 만들기, EM비누 만들기, 재활용 DIY 교육 등 환경과 봉사활동을 연계한 전문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녹색운동을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안양 YWCA

최정근 팀장

제27회 정기총회

제27회 정기총회가 1월 22일 안양Y 강당에서 9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 감사패 전달, 봉사상, 20년·10년 자원지도자상, 회원증모상, 우수직원상을 시상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현장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또한 회원의 대표인 이사를 공천하는 이사 5명과 5명의

공천위원에 대한 인준과 임명장수여, 선서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회원지도자를 선출하였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착한 여행



안양Y는 중·고등학생 33명과 함께 1월 5일 강원도 DMZ 자연생태탐방을 떠났다. 환경보존캠페인(깃발만들기), 두타연 트레킹, 두부만들기, 콩털기, 장작때기 등을 함께 체험하며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착한 여행을 하였다.

의정부 YWCA

이미진 간사

동계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의정부Y는 1월28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 지역 청소년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계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번 자원봉사 학교는 취약계층 노인들과 함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둘째날부터 의정부 기능역에서 노숙인과 노인들께 무료 급식 배식활동과 청소를 하였다. 그리고 의정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며 노인 복지 현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원봉사 학교 일정 중에 의정부Y 정기총회에도 참관하여 YWCA 정체성 및 주력운동관련 사업과 지도자 선출 등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공동체내에서의 NGO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부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성인지사업모니터요원 양성과정 후속모임

대전Y는 12월 4일 성인지사업모니터요원 양성과정 후속모임으로 김용분 보좌관(대전시 여성시민통합 특별보좌관)과의



만남을 개최하였다. 후속모임 교육생들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활동해 줄 것과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인 성인지 정책을 실행하고 대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청주 YWCA

권진숙 간사

제48회 정기총회

청주Y 1월 24일 청주Y 강당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사업보고 및 2013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주YWCA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임이사와 재신임이사 및 공천위원을 선출하였으며, 20년·10년 봉사상과 10년 근속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청주YWCA 부속시설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노영민(국회의원), 임현경(충청북도의원), 윤석위(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추천된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키다리 인문학교 종강식



청주Y 키다리 인문학교가 1월 26일 종강식을 가졌다. 청주Y 키다리학교는 작년 7월 '평화는 나의 여행'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인문학 강의와 '멘토와 함께하는 조모임'을 진행하였다.

멘티들과 멘토, 청소년 위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7개월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종강하였지만, 청소년들이 'Y다운 리더'로 성장하길 소망한다.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제28회 정기총회

충주Y는 1월 29일 제28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된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14대 회장(한경식 회장)의 이임사와 15대 신임회장(정숙자 회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각 기관에서 30여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즐거운 방학 교실



충주Y는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가정 자녀들을 위한 즐거운 방학교실을 진행하였다. 겨울방학동안 매일 30여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하여 체험 활동과 천연비누만들기, 즐거운 영어, 한자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급식을 지원받았다.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청소년 자기개발프로그램



논산Y는 논산Y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 바리스타 직업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커피의 기본 이론교육과 실습을 하며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천안 YWCA

김상미 팀장

제23회 정기총회

천안Y 제23회 정기총회가 1월 24일 천안Y 강당에서 열렸다. 개회예배, 김옥화 명예이사 추모시간 이후 안건 통과가 있었고 신임이사 3명이 임명되었다. 또한 감사패 전달, 회원봉사상 시상이었다.

제1회 다래교실 졸업식

천안Y 다래교실 졸업식이 1월 17일 천안Y 강당에서 있었다. 총 5명의 학생 중 3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장과 상품을 시상하였다.

| 서부

광주 YWCA

김해정 간사

제84회 정기총회

광주Y 1월 29일 제8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이사(10명) 및 공천위원(5명)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으며, 평생회원패, 후원단체증,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회순에 의해 2012년 사업결산보고 승인과 2013년도 사업안심의를 마쳤다.

장기수 위로예배

광주NCC가 주최하고 광주기독교단체(광주NC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CBS)가 함께하는 설맞이 장기수 위로예배가 2월 4일 광주Y 강당에서 있었다. 광주Y는 해마다 장기수 선생들을 초청해 예배를 통해 위로하고 선물을 나누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

남원 YWCA

조윤희 팀장

제21회 정기총회

남원Y는 1월 24일 제21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개회예배

이후, 2012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하였다. 이날 신나는공부방 학생들의 오카리나 공연이 있었고 경품행사를 마련하여 즐겁고 행복한 정기총회 시간으로 만들었다.

전주 YWCA

김은진 부장

설맞이 전통시장 부정유통 캠페인



전주Y는 1월 29일과 2월 6일 설맞이 전통시장 부정유통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 20명이 나서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상가,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와 확인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농업인과 소비자를 돕는 길임을 알릴 수 있었다.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제31회 정기총회

여수Y는 2월 1일 여수Y 회관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사·위원, 실무, 일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과 봉사상, 회원증모우수자와 근속직원에게 대한 시상하였다. 이어 2012년 각부 결산 및 사업보고,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공천위원 인준, 이사·공천위원 선서 등이 진행되었다.

제주 YWCA

장진우 간사

제46회 정기총회

제주Y는 1월 29일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3~2014년 제주Y를 이끌어 갈 박은경 신임회장을 선출하였다. 이어 2012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모범회원상 시상, 민들레회원증모우수 시상 등을 진행하였다.

서귀포 YWCA

김지희 간사

제21회 정기총회

서귀포Y는 1월 24일 서귀포Y 회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라는 주제로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였다.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서귀포Y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은 1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에 학부모와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열었다. 총 4개의 과정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은 '엄마와 함께 천연비누 만들기', '공원이 있는 냅킨아트', '공원이 있는 클레이', '역사놀이 뜰어 만드는 세상'을 진행하였다. 이 특별프로그램은 15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에 진행되었다.

| 동부

대구 YWCA

김세형 차장

청소년위원회 장학사업



대구Y 청소년위원회는 2009년부터 우수활동회원을 격려하고 표창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Y-틴 박소현, 윤예지 학생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장학사업을 통해 2013년 Y-틴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며 이들이 청년 지도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나갈 것을 기대한다.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대구Y 농산물명예감시원은 설맞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13년 2월 4일 대구지역 시장을 돌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원산지 표시 홍보 및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홍보 전단지 배포하였다. 농산물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부산 YWCA

박지영 간사

제68회 정기총회

부산Y는 1월 31일 부산Y 회관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2012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심의가 이뤄졌다. 2013년을 새롭게 섬길 이사 10명과 공천위원 5명을 선출했다. 기독교 여성의 사회적 책임과 부산YWCA 지도자 및 실무자의 사명 의식과 헌신,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다.

설·명절 맞이 원산지 표시 캠페인



부산Y는 1월 30일, 2월 5일 부산Y 농산물명예감시원 30명과 함께 초량시장과 부곡재래시장에서 농산물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사천 YWCA

박양성 간사

제25회 정기총회

사천Y는 1월 29일 사천Y 강당에서 내·외빈,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2012년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와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천Y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과업들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울산 YWCA

이민정 간사

제31회 정기총회

울산Y는 1월 24일 제31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개회예배를 드리고, 박순자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하였다. 2012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받는 시간을 가졌다. 6명의 신입이사 인준과 YWCA현장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3년에도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라는 주제로 사업을 전개한다.

포항 YWCA

김윤미 팀장

제33회 정기총회

포항Y 제33회 정기총회가 1월 29일 포항Y 회관에서 2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12년 결산보고, 사업보고와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다. 또한 김인자 신임회장 취임식이 있었다. 신임부회장은 김명희, 김정미 이사가 선출되었다.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제22회 정기총회

김해Y는 1월 30일 김해Y 강당에서 8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22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개회예배 이후, 영상으로 보는 2012년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신임이사, 재임이사, 공천위원 투표, 평생회원증서 수여 등으로 진행하였다. 신임이사에는 강승희, 김성곤, 김태자, 이해경, 임수영 회원이 선출되었고 다과를 함께 나누며 2012년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2013년을 새롭게 맞는 교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마산 YWCA

이애라 팀장

2013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마산Y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3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시작한다. 총 40주 동안 주 2회 진행하며, 회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지도사가 파견되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여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양산 YWCA

박경하 간사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운영

양산Y는 고령자인재은행(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정되어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능력을 높여 현대 사회에서 소외받는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구성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진주 YWCA

김상녀 간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민들레 공부방



진주Y 어린이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12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민들레 공부방'을 운영하였다. 영화관람, 과학공연, 복화술 인형극, 썰매캠프, 쿠키클레이 체험학습, 펠트공예, POP예쁜글씨, 종이접기, 서예학습, 독서미술, 점핑클레이, 체육활동, 자전거 타기 등으로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들을 위하여 건강하고 알찬 방학을 보냈다.

창원 YWCA

황은진 간사

대학Y 재건을 위한 첫 발걸음

창원Y는 1월 17일 재능과 에너지로 뚝뚝 뭉친 대학생 5명이 모였다. 창원YWCA 대학Y 재건을 위한 모임으로, 청년운동 방향과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자신이 가진 재능들로 창원YWCA 운동 활성화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사회 변화에 앞장 설 수 있는 청년 회원들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통영 YWCA

제22회 정기총회

통영Y는 1월 29일 제2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결산 및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신임이사를 세 명을 임명하였다.

I YWCA | 감동이 있는 나눔 북한어린이돕기에 30만원을 기부한 부천Y 가사돌봄회원 신OO님의 사연

사랑에 빛진 마음 북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글 | 송록희(부천Y 사무총장)

2013년 1월 25일 금요일 저녁 6시30분. 부천Y '돌봄회원을 위한 민들레강좌' 1월 교육이 있는 날이다. 이날 돌봄회원의 건강관리법을 강의해 주시기로 했던 강사분이 눈길 때문에 늦어지셨다. 강사를 기다리는 동안 YWCA 북한어린이돕기 동영상을 틀어 함께 시청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한통의 전화가 사무실에 걸려왔다.

“총장님! 저 가사회원 000입니다.
북한어린이돕기에... 30만원을 내고 싶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은 아실거예요...
제겐 3000만원과도 같은 돈이라는 걸.....”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2000년부터 부천Y 가사돌봄회원으로 일을 시작한지가 벌써 올해로 13년째네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 학원비에 보태려고 이 일을 시작하지만, 전 정말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어요.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입고 갈 옷조차 없어서 추리닝 바지에 남이 입다 버린 잠바때기 하나 걸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 한나절 일하고 받는 일당이 18,000원이었는데 첫 일당을 받고 얼마나 될 듯이 기뻐는지 몰라요. 나에게 18,000원을 주는 그 집 주인이 이돈 주고 사람 쓰는 것이 아깝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해 줬어요. 몸살이 나서 아플 때도 있었지만 약을 먹고라도 가서 열심히 일해 드렸어요. 그러던 중 2009년도에 우리 남편이 자꾸 아프다기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에 위암 초기가 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막막한데.....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형편에 병실에서 간호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는 당신이 살아도 일을 하러 가야되고, 죽어도 일을 하러 가야돼... 수술 당일, 반나절만 남편 곁을 지키고,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병실에서 간호하고, 새벽엔 애들 밥해주고, 다시 일하러 가고.....

제 사연이 기가 막혔던지 일하러다닌 집 사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100만원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병원비에 보태라고.....그 사모님도 암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셨어요. 내 손에 100만원을 쥐어주셨던 그분의 손길이 오늘 떠올랐어요. 늘 마음속에 갇아야한다는 마음의 빗이 있었는데.....이제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북한 애기들에게 전해주세요.

총장님, YWCA가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Y가 없었다면, Y가 일을 연결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족은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탁이에요. 우리 돌보미모임 때 제가 성금 낸 거 이름 밝히지 말아주세요. 너무 적어서 부끄러워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YWCA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고인다. 공책 위의 '나눔' 글자가 눈물 방울에 자꾸 번진다. 

월간<한국YWCA>가 2013년 새롭게 개편 되었습니다.

핵심어 : 생명, 돌봄, 여성, 평화, 에큐메니컬

I. 현장

- YWCA연합회, 회원YWCA 활동을 중심으로 한 현장 스케치

II. 정책

- 2013 한국YWCA 정책 공유
- 정책 실현 현장 부각

III. 시사 및 문화

- 2013 YWCA 생명정신에 기반한 사회와 문화 들여다보기

월간<한국YWCA>는 한국YWCA의 정책과 운동 논의를 강화하고, 기독교성NGO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Y의 다양한 활동과 Y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코너를 확대·강화하였습니다. 월간<한국YWCA> 한 권으로 한국YWCA의 다양한 소식과 정책 방향, 시대적 흐름과 이슈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구독방법 : 구독료 1만 원 일시불(1년분)

♥ 계좌번호 :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서연 홍보출판팀 간사
(02-774-0230 / ywcapr@hanmail.net)